

CONTENTS





2017 WINTER vol. 176

발행 · 편집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발행일 2017.12.12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Tel. 052. 290. 3270 홈페이지 http://www.junggu.ulsan.kr

'한 해를 돌아보며..'

- 04 옥사큰애기아시장 1주년 성공적 운영
- 06 중구. 구정 주요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밝혀
- 08 전국우수시장박람회서 전통시장 활성회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 09 중구 국민디자인단 '국무총리상' 수상
- **10** 중구, 2018년 당초예산 3,459억원 편성
- 11 중구, 2018 예산확보 위한 시장 초청 주민간담회 개최
- 12 2017 중구육이종합지원센터 운영 '잘했다'
- 13 중구 평생학습관 개관 1주년 기념주간 운영
- 14 중구, 병영성 축성 600주년 기념사업 '성홍

문화관광도시 중구, 도약의 밑거름을

- 16 중구 2017 울산중구 관광 사진공모전 결과 발표
- 18 중구, 도시민박업 창업 위한 도시재생대학 개강
- 19 중구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건물주 · 임치인 상생현약 설명회
- 20 중구, 15~16일 양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패투어 개최
- 21 중구, 올해 마지막 '성남댄싱 나이트데이' 운영



'빛났다' 종갓집 중구 행정







- 27 중구, 울산 최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 중구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준비 '착착'
- 28 중구지역 13개동 천사계좌 단체가입 마쳐
- 29 중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
- 30 우리가 본 중구 - 중구뉴스 기자단
- 32 중구의회
- 34 생활정보





267만여명 방문, 24억 천여만원 수익 거둬... 방문객 만족도 80% 이상

원도심 관광자원 및 고객층 다양화 등으로 상가 운영시간 연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

중앙전통시장 내 아시장서 개장 1주년 기념행사로 각종 공연 진행...향후 더 나은 아시장 다짐



행정안전부 지정 공식 상설야시장인 울산 중구 '울산큰애기야시장'이 개장 1주년을 맞았다.

그 동안 260만명이 다녀가면서 24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청년과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고, 중앙 전통시장을 비롯한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울산의 야간 명소로 성장했다는 평가다.

중구청에 따르면 11월 11일 개장 1주년을 맞은 울산큰애기야시장은 지난 10일까지 운영 결과, 267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73만1,160명이 판매대에서 구매를 해 24억1,670만7천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차례, 오후 7시부터 자정 또는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되는 울산큰애기야시장은 먹거리 자체만으로도 경쟁력 있는 야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 개장 이후 이날까지 8차례의 리뉴얼을 거쳐 자체 경쟁력을 키워왔다. 현재는 큐브스테이크, 야채통통삼겹말이, 소고기불초밥, 가문어꼬치, 새우관자꼬치와 막창, 염통구이와 철판아이스크림 등 18개 판매대에서 이색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기존의 원도심 문화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야시장의 추진을 통해 이동식 무대와 음향시설 등 최적의 공연시설을 갖춘 '추억의 음악다방'을 운영하면서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전하고, 젊은층에게는 색다른 재미를 주고 있다.







주말에는 음악공연과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침으로써 먹거리뿐만 아니라 흥겨운 볼거리도 풍부한 즐거움이 가득한 야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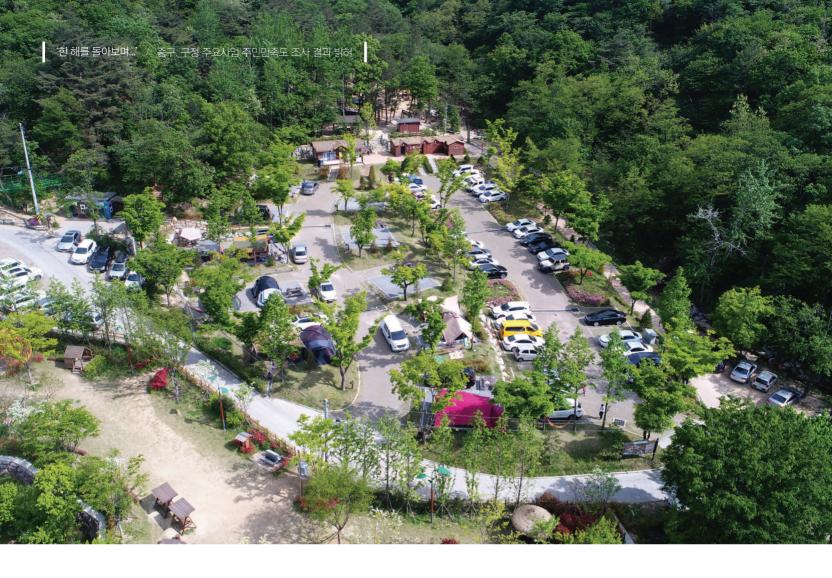
이외에도 지난 2월 말 야시장 내에서 가족, 친구, 동료들과 편안하게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79.9㎡ 규모로 테이블과 의자 등을 갖춘 휴게쉼터 1개소를 설치해 이용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월과 10월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서 응답자의 80%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기록하고, 78%가 2번 이상 방문했으며, 87%가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것도 울산큰애기야시장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기 때문인 것으로 중구청은 분석했다.

특히, 지난 6월 중구청이 실시한 '울산큰애기야시장 운영으로 중앙전통시장과 원도심에 미치는 성과 조사' 결과, 고객층의 다양화와 빈 점포의 감소, 전통시장의 운영 시간 연장, 신규 개업 증가 등의 긍정적인 연쇄효과를 만들어 낸 것 또한 성과로 평가했다. 더욱이 야시장 개장으로 원도심 일원의 고객층이 20대 미만에서 20대 이상과 가족 단위 고객층이 많이 늘어났으며, 가족 단위와 중·장년층의 방문 증가는 원도심 일원에서의 외식, 영화관람 등으로 이어져 상권이 활성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당시 분석에서 원도심을 찾은 방문객이 외식, 쇼핑, 영화 관람 등으로 소비하는 금액을 1인당 1만5,000원 정도며, 원도심 방문에 따른 교통비와 주차비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같은 기간 동안 333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또 야시장 조성과 운영에 소요된 예산이 지난 6월 조사 당시까지 전체 12억7,800만원에 불과해 야시장 운영으로 원도심 경제에 미친 가성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울산큰애기야시장이 울산시민과 방문객들의 사랑으로 지난 1년여간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적지 않은 성공을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이색 먹거리가 넘쳐나고, 즐길거리가 만연해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은 전국 대표 야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중구가 만든 시설들 좋아요."

중구, 구정 주요사업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밝혀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등 8개 주요사업 전체 만족도 77% 이상... 개선요구 사항도 수렴 울산 중구청이 올 한 해 실시한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올 한 해 8개 부서에서 실시한 주요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자체 조시했다.

조사 대상은 시설이용 주민과 수혜자 1,021명으로 대면조사를 통해 시설(사업)의 만족도와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구정 주요사업은 1억원 이상 149개 사업이며, 이중 조사를 진행한 시설은 종갓집 예술창작소를 비롯해 성안물놀이장, 중구 청소년 문화 의집, 울산큰애기 야시장, 성남둔치 푸드트럭존, 태화저수지 잔디광장 조성 경관개선사업, 중앙길 간판개선사업,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 등 8개다. 1

3

4

1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2 종갓집 예술창작소3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4 울산큰애기 야시장

8개소의 전체 만족도를 보면 매우 만족이 39%, 만족 38%, 보통 19%, 불만족 4% 등으로 '만족한다'는 대답이 77%에 달해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입화산 참살이숲 야영장의 경우 운영자의 친절 함과 네이처 스포츠장 놀이시설 등에서 호평을 받으며 매우 만족이 66%로 가장 높았고, 만족 26%, 보통 6%, 불만족 2%를 기록해 '만족한다'는 답변이 92%로 가장 높았다.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은 높은 인지도와 새롭게 조성된 시설로 인해 매우 만족 43%, 만족 41%, 보통 15%, 불만족 1%였다. 태화저수지 잔디광장조성 경관개선사업은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과 이용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대해 높은 점수를 얻으며, 매우 만족 40%, 만족 43%, 보통 15%, 불만족 2% 순이었다.

이들 3개 사업의 경우 모두 응답자의 8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시설 이용이 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종갓집 예술창작소의 경우 매우 만족 35.6%, 만족 26.9%, 보통 37.5%로, 유일하게 불만족이 0%를 기록했다.

반면, 종갓집 예술창작소는 방역 실시, 성안물놀이장은 부대 시설 확대와 놀이시설 다양화, 중구 청소년 문화의집은 프로그램 추가 편성, 울산큰애기 야시장은 가격 적정화, 성남둔치 푸드 트럭존은 휴게쉼터와 그늘막 시설 추가 설치 등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이 수렴됐다.

중구청은 준공 후 일정기간 운영한 지역 내 시설에 대해 매년 1차례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 각종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사업부서별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중구, 전통시장 활성화 잘했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서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태풍 피해시장 조기 정상화, 전통시장 주차장과 시설개선 높이 평가



울산 중구청이 울산큰애기야시장의 성공적 개장과 지역 내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중구청은 10월 27일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2017 전국우수시장박람회'에서 우수지자체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는 전국 120여개의 전통시장이 참여하고 매일 5만여명, 3일간 15만여명의 관람객이 찾는 대한민국 최대의 전통시장 축제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장상인들의 교류의 장인 전국우수시장 박람회는 올해 정선종합경기장 일원에서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하나 된 열정으로 도약하는 전통시장'을 주제로 18개 시·도 120여 개의 우수시장이 참여했다.

중구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한 이번 제14회 전국 우수시장박람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 육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표창을 수상 하게 됐다.

중구청은 지난해 태풍 '차바'로 태화 · 우정시장이 침수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당일부터 현장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민 · 관이 함께 합심해 정상복구를 위해 모두가 땀을 흘린 결과, 피해가 컸던 태화시장이 수해 16일만에 5일장을 정상 개장하는 등 조기에 정상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쏟았다.

또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문화의거리와 반구시장 등 시장 인근 공영 주차장을 수년간 꾸준히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선우시장과 태화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외에도 고객들의 안전한 쇼핑환경 개선을 위해 아케이드와 CCTV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각종 시설개선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전통시장 아시장 조성사업 공모에 당선된 전국 유일의 상설 아시장인 울산큰애기아시장을 개정해 원도심 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로 관광 객을 유치해 성공적인 정착을 이뤄냈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자 문화와 예술, 그리고 쇼핑이 함께 하는 어우러진 시장 마케팅행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울산 중구 '쌩쌩한 국민디자인단'은 11월 24일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열린 행정안 전부 주관 2017년 국민디자인단 성과 공유 대회에서 공모사업인 '우리동네 대피소 지도 만들기'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민디자인단 사업은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공무원이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 참여해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 발전시키는 것으로 지난 6월부터 추진돼왔다. 중구 '쌩쌩한 국민디자인단'은 지역 주민과 전문 디자이너 등 11명으로 구성돼 '우리동네 대피소 지도 만들기'라는 주제로 실용적이고 행정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대학생 인턴십을 활용하는 등 지역 인재와 연계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했고, 휴대가 가능하고 홍보가 용이하도록 핸디형 사이즈의 지도를 중구 관내를 구획으로 나눠 권역별, 재난유형별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지도는 전체로 폈을 때 가로 37cm, 세로 24cm 크기로, 접었을 경우 가로 9.2cm, 세로 12cm 정도로 축소돼 재난 발생 시 누구나 휴대할 수 있다.

'우리동네 대피소 지도 만들기'는 정비가 필요한 대피소를 확인하고, 대피소가 부족한 동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대피소를 신규 지정하며 제작됐다.

이를 위해 디자인 기법적용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과 아이디어를 공유한 뒤 13개 동을 동·서·중앙등 3개 권역에 지진, 태풍과 홍수등 재난유형으로 나눠 재난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담았다. 또 16개 대피소의 위치는 물론, 재난 대비 생존배낭에 필요한 물품, 지진행동요령 안내정보, 재난청취가 가능한 라디오 주파수, 재난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등도 포함됐다. 특히, 지도를 가진 개인과 가족이 우리 가족의 옥외대피소와 이재민 구호소를 미리선정하고, 안전 대피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 국민디자인단은 지도 제작과 함께 효율적인 지도 사용을 위해 활용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역봉사단체, 공동주택 입주자회 등과 연계해 관리체계를 확립해 지속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청은 추진과정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7월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 🚳

중구 국민디자인단 '국무총리상' 수상

휴대 가능한 '우리동네 대피소 지도 만들기' 과제 수행

지역 인재와 연계, 재난상황별 대응방법 수록, 휴대 용이해 활용 높인 점 등 인정





중구, 2018년 당초예산 3,459억원 편성

지방세, 세외수입 등 늘어 2017년 보다 527억 증액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68억원 등 주민 안전 위한 예산 1.000% 이상 확대

중부도서관 이전, 교육경비 지원 확대 등 교육, 원도심 도시재생 등 국토 및 지역개발도 늘어 울산 중구청은 11월 20일 2018년 당초예산으로 올해 보다 500억원 이상 늘어난 3,459억원 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구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세 368억원, 세외수입 309억원, 지방교부세 68억원, 조정교부금 711억원, 국·시비 보조금 1,852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149억원 등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527억원이 증액됐다.

재원별로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올해 1,463억원에서 1,852억원으로 390억원 가량 늘었고, 세외수입이 100억원, 지방세가 23억원, 내부거래가 10억원 가량 각각 증가됐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515억원이 증액된 3,345억원으로 책정됐고, 특별회계 세출은 11억원 증액된 114억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 세출예산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1,614억원(46.6%)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절반 수준에 이르렀고, 공공질서과 안전이 201억원(5.8%)으로, 수송과 교통 179억원(5.1%), 일반공공행정이 162억원(4.7%), 문화와 관광160억원(4.6%) 순이었다. 지난해 보다 증가폭이 가장 큰 분야는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로 2017년 보다 183억원, 1,022.8%가 급증한 201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서는 태화재해위험개선 사업과 우정재해위험개선 사업에 각각 168억원과 15억원 등 자연재해 예방사업에 1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도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교육 분야의 경우 울산시립미술관 건설로 이전하게 된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예산 76억원과 교육경비 지원 4억원 증액 등으로 전체 72억원, 244% 가량이 증가한 102억원 가량이 책정됐다. 63%인 62억원이 늘어나 전체 161억원이 편성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경우 도시재생 중구로다 사업에 69억원 등 전체 도시재생에 71억원, 태화저수지 힐링여가녹지 조성사업 18억원, 성안~가대 도로확장 9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사업으로는 태화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우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도시재생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 성남공영주차장 증축에 36억원과 '2019 올해의 관광도시' 13억원, 학성새벽시장 아케이드 설치 11억원, 학성육성프로젝트 11억원 등을 편성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2018년 당초예산안은 12월 21일까지 열리는 제20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 의결하게 된다. 📆



울산 중구청이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2018년 예산확보를 위한 주민가담회를 가졌다.

중구청은 10월 30일 2층 중구컨벤션에서 김기현 울산광역시장과 박성민 중구청장, 지역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예산확보, 시장 초청 중구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울산시장이 구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해 중구청 을 방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구민들이 원하는 주요사업들을 알고, 예산 반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 주민들은 2018년 주요사업 가운데 울산시의 예산 지원이 시급한 4개 사업에 대해 건의를 이어갔다. 중앙동 방위협의회 주석찬 회장은 "원도심 재생 등에 따른 주차수요 증대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에 따라 현재 일일 평균 490대가 주차하는 성남공영주차장의 증설이 필요하다"며 "4층 5단, 262면으로 116면 늘리기 위한 예산 중 시비 18억원을 확보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최호경 회장은 "유곡로 일원에 대단위 택지가 조성되면서 교통체증이 심해졌다. 유곡동 118번지 일원에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 교통체증의 30%가 해소되는 만큼 시비 38억여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노인회중구지회 조남근 회장은 "중구는 노인인구가 많아 공공실버주택의 건설이 중요하다"면서 빠른 완공을 위한 예산 지원을 부탁했다. 중구 약사동 327-6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공공실버주택은 전체 257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돼 전체 160호의 주택과 노인복지관 등을 갖출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시비 30억원 반영이 시급하다.

바르게살기중구협의회 박순택 회장은 "울산에서 유일하게 중구만 직영 체육관이 없는 만큼 25만 구민들의 숙원사업인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달라"고 강조했다.

중구청은 2020년까지 전체 99억원의 예산을 들여 혁신도시 내 2,437㎡ 부지에 지상1층, 지하1층 연면적 4,797㎡ 규모로 다목적체육관의 건립을 구상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울산시의 설계비 5억원 반영이 필요하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정확히 알고 시급한 부분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여했다"면서 "2018년 예산을 준비하면서 건의된 내용을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중구 발전 위한 예산 필요합니다."

중구, 2018 예산확보 위한 김기현 시장 초청 주민간담회 개최

주차장 증축, 유곡동 도로개설, 공공실버주택 등 예산 요청... 김기현 시장 '긍정' 답변





중구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 "잘했다."

2017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우수운영사례 공모서 최우수상 수상

지역 아동 아버지들의 육아참여 '아빠 장난감 수리단' 높은 평가



울산 중구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올 한 해 우수한 운영을 벌였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육이종합지원센터는 11월 23일 울산 현대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17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에서 우수운영사례 공모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 시 ·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18개와 시 · 구 · 군 육아종합지원센터 76개 등 전체 9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모 대상은 설치와 운영 관리, 인적 관리, 홍보 관리,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 모두 6개 영역에 대해 진행됐으며, 대상 6개소, 최우수상 6개소, 우수상 8개소를 각각 선정했다.

중구육이종합지원센터는 이번 공모에서 '가정양육 지원사업' 분야에 '종갓집 아이세상-아빠 장난감 수리단'으로 참여했다.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 9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시·도와 시·군·구 등 20개소를 선발했으며,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중구육이종합지원센터 등을 최종 선정했다.

센터 회원 아버지로 구성된 '종갓집 아이세상-아빠 장난감 수리단'은 지난해 9월부터 각종 고장난 장난감을 고쳐 수리 완료된 장난감을 재대여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더 많은 영유아들이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특히, 센터 개인회원 가정에서 고장난 장난감을 가져오면 무상 수리해주는 등 아버지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역 신문과 방송 등에 게시함으로써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키우는 행복 육아를 실현하고 있다.

'종갓집 아이세상-아빠 장난감 수리단'은 12월까지 3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2018년 상 · 하반기에도 신규로 구성해 장난감 수리 외 중구 관내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 기회를 높이고 아버지들 간 육아 정보 교환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평생학습도시인 울산 중구청이 평생학습의 메카인 '평생학습관'의 개관 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평생학습관은 11월 셋째 주를 평생학습관 개관 1주년 기념 주간으로 선정, 11월 13일 부터 17일까지 다양한 내용의 학습서비스를 제공했다.

기념주간 첫 날인 13일에는 '컬러테라피'를 시작으로, 14일에는 얼굴이미지 메이킹 '메이크업', 15일에는 '천연 치약 만들기', 16일에는 '대나무 부채 만들기', 17일에는 '스투키화분 만들기' 체험행사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생학습관 2층 동아리실에서 각각 진행했다. 또 13일부터 17일까지 '신비의 타로 운명 엿보기'를 통해 방문객들이 타로점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이들 체험프로그램에는 구민 2,000여명이 참여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됐다.

개관 1주년인 15일에는 3층 다목적실에서 기념식을 가지고, 1년간의 운영성과 보고와 ' 평생학습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평생학습기관장과실무자, 평생학습강사, 학습동이리 회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는 '평생학습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에서는 그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학습인들 간의 정보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날은 개관 1주년 기념식 종료 후 오후 3시부터 강원국 강사를 초청해 '마음을 움직이는 말과 글'이란 주제로 공감+ 테마 특강을 진행했다. 기념주간 마지막날인 17일에는 오후 3시부터 평생학습관 3층 다목적실 에서 배은지 강사를 초청해 '셜록컴퍼니를 아시나요'란 주제로 창업ㆍ마케팅 분야의 제7회 공감+ 테마특강을 열었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개관한 중구 평생학습관은 1년 동안 지역 주민의 학습 요구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160개를 운영했고, 특화 사업과 주민 밀착형 학습상담 등 다채로운 학습서비스 제공해 2만 여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중구 평생학습관 개관 1주년 기념 주간 운영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역 내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

> 15일 중구 평생학습관 개관 1주년 기념식 개최... 테마특강 등 무료 제공



중구, 병영성 축성 600주년 기념사업 '성황'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14~15일 양일간 전체 2만명 방문

울산 중구청은 지난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병영성과 외솔기념관 일원 등지에서 열린 '병영성 축성 600주년 기념 행사'에 전체 2만여명의 방문객들이 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선초 경주에서 울산 병영으로 이전한 경상좌도 병영성이 축성 600년이 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고 주민들에게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14일 오전 8시 동천 자전거 연습장 일원에서 사전에 신청한 600명의 참가자가 동천강변을 달리는 '병영 뚝방길 마라톤 대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번 마라톤에는 전국에서 신청한 남녀노소 참가자들이 참여해 10km와 5km로 나눠 병영성이 보이는 동천강변을 달림으로써 축성 600년을 맞은 병영성을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오후 3시에는 병영성 동문지 일원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박성민 중구청장과 시·구의원, 병영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병영성 축성 600주년 행사'의 기념식을 벌였다.







병영성 축성 의미 새기고, 문화재로서 지역 발전에도 이바지



이어 중구 병영지역에서 전승된 민속문화재인 병영서당치기와 조선시대 군대를 출동시킬 때 국가 제사를 지냈던 모습인 '둑제'를 재현해 과거 주요 군사요충지였던 병영성의 모습을 되살렸다.

또 '축성 600주년 기념 600명 시민대합창'에서는 일반 참여자와 합창경험자, 병영 주민을 비롯한 중구 구민 등으로 구성된 600명의 합창단이 참여해 '고향의 봄'과 '봄이 온다면' 등을 합창했다.

합창은 출정을 앞둔 병사가 고향의 홀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 출정에 대한 의지와 용기 등을 통해 전쟁에 승리한다는 내용을 표현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장엄하면서도 결의에 넘친 의기로 국가를 지킨 선조들의 얼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의미를 더 했다.

오후 5시부터는 전쟁에 앞서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진행했던 진격의 북소리 퍼포먼스 공연에 이어 장군과 병사들을 재현한 배우들의 출정식 퍼레이드도 진행돼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15일에는 병영성 둘레와 병영성 내 기념물 등을 돌아보는 걷기대회가 열려 역사인식과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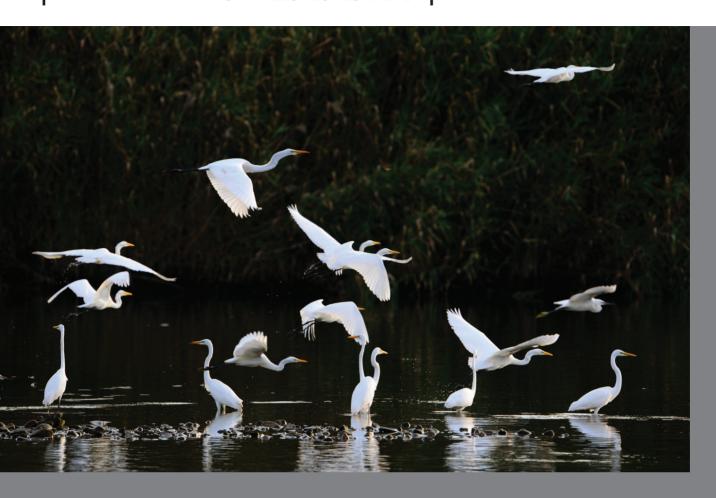
또 이틀동안 곳곳에서는 스탬프 투어, 병영성 쌓기 대회와 병사복장 및 군사무기체험, 호패와 깃발 만들기, 병영음식 맛보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이어졌고, 병영성의 캐릭터인 '호아'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돼 병영성을 찾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외에도 중구청은 12월까지 병영성 일원에서 깃발전을 진행하고, 병영성 모형과 맵핑 영상 등을 활용한 홍보관 운영, 기념서적인 '병영성 600명의 이야기'도 발간해 600주년이 된 병영성의 축성을 기념했다.









'문화관광도시 중구 알릴 사진 찾았다.'

문화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울산 중구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알릴 사진들이 선정됐다. 울산 중구청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2017 울산중구 관광 사진공모전'의 입상 작품 29점을 최종 선정했다.

중구청은 지난 3월 사진공모전을 공고하고, 지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구청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중구의 다양한 관광명소와 축제, 자연경관과 문화체험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의 전국 공모를 통해 전체 397점의 사진을 접수받았다.





ISARC









중구, 2017 울산중구 관광 사진공모전 결과 발표 3월부터 10월까지 전체 397점의 사진 접수... '비상' 등 전체 29점 선정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는 문소운씨가 제출한 '비상'이란 작품이 차지했다.

비상은 태화강을 노닐던 백로 떼가 하늘로 비상하는 역동적인 순간을 포착한 작품으로 문화관광도시로 도약 하려는 중구의 모습을 그려내 주제적합성과 독창성, 작품 성 등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었다.

우수상에는 중구의 명소인 태화강 대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정성주씨의 '생태도시'와 태화강변에서 바라본일몰의 장관을 포착한 김민재씨의 '태화강의 일몰', 중구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눈꽃 축제에서 환호하는 주민들을 담은 윤기득씨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 3점이선정됐다.

남구 은월루에서 바라본 중구의 모습을 담은 박노실씨의 '색다른 태화강 대공원을 바라보다'와 매년 태화강을 찾아오는 황어 떼의 모습을 포착한 김동욱씨의 '황어회귀' 등 5점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 마두희 축제에서 보여진 줄타기의 순간을 잡은 임미 란씨의 '줄타기'와 축성60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병영성 행사의 모습을 담은 김택수씨의 '병영성600주년 행진' 등 20점은 모두 입선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출품작들은 울산의 대표관광지인 태화강과 태화강 대공원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 많았고, 중구의 축제와 지역명소 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도 출품됐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울산 중구 문화관광 홈페이지 '사진공모전 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이며, 중구의 관광홍보물 제작에도 쓰이게 된다.

중구청은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이, 우수상은 각 100만원, 장려상은 각 50만원, 입선 20점에 는 각 10만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또 선정된 사진들을 도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도시민박업 창업·마을기업 설립 가능자 20명... 12월 14일까지 교육

외국인게스트하우스 설립 관련 정보 제공, 마을기업 설립 및 활용 방안 등 배워

중구, 도시민박업 창업 위한 도시재생대학 개강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 중구청이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했다. 중구청은 11월 23일 성남동 평생학습관 2층에서 '원도심 도시민박업과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은 지속가능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역량강화 과정으로 주민 참여를 도모하고 향후 원도심 도시민박업과 마을기업 설립을 위한 교육과 자립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교육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도시민박업을 실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중구의 부족한 관광·숙박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까지 수강생을 모집, 1차 서류심사와 2차 대면심사를 벌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게스트하우스 창업이나 마을기업 설립을 원하는 울산지역 주민 20명을 최종 선발했다. 도시재생대학 교육은 12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전체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교육 과정은 문화의 거리와 울산큰애기 야시장 등 관광활성화에 따른 관광객의 유입 증가에 비해 숙박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내 공실과 공가를 줄이고, 향후 도시민박업 창업과 마을기업 설립이 가능하도록 자립능력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주요 교육으로는 도시민박업의 이해와 설립 및 운영사례, 등록과 절차방법,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이해 및 설립 절차와 활용방안에 대한 전문가 강의 등이 진행된다. 특히,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를 초청해 도시민박 업사업계획서 작성과 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사업계획(안)을 작성해 1:1 멘토링으로 사업에 대한 진단도 받아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부산 동구 이바구캠프 등 선진지 견학과 도시민박 숙박체험을 병행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구청은 이번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한 수강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교육수료 우수자의 경우 도시닥터로 위촉해 울산중구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중구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건물주 · 임차인 상생협약 설명회

상인회, 건물주 · 임차인 등 50여명 참석... 도시재생사업 계획, 상생협약 내용 설명

임차료 5년간 동결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약 중요성 다뤄...성공적 도시재생 목표

"도시재생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울산 중구청은 11월 13일 학성동 학성새마을금고 2층 회의실에서 학성가구거리 상인회, 건물주·임차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기준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주요 평가조건으로 반영됨에 따라 중구청과 학성가구거리 상인회, 지역 주민이 상생협약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대한 설명과 현재 도시재생사업 계획(안) 설명, 질의응답, 상생협약 내용설명의 순서로 진행됐다.

중구청은 쇠퇴하는 학성동 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울산시가 선정하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국비지원 공모에 학성동 일원의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안은 중구청이 지난 3월부터 전문기관 (주)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해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 안에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한달 간 추진된 제1회 학성동 도시재생대학에서 주민들이 발굴한 학성가구거리와 구역전시장, 학성새벽시장과 충의사 일대 등 4개 구역에 대한 아이디어가 담겼다. 또 지난 5월 진행된 관련 사업 용역보고회를 통해 '골목 문화 만들기를 통한 학성 르네상스'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에 따른 보행편의성 증진, 지역자산 활용, 공동체 커뮤니티 강화 등 3개의 전략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 도 지난 9월에는 주민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각종 아이디어를 제안받고, 이를 반영한 상태다.

중구청은 이를 토대로 학성동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가로환경개선과 주차공간 마련, 임대료 5년간 동결 등을 골자로 한 상생협약안을 마련,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약정서를 받고 있다. 중구청은 학성가구거리를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다.

올해 공모에 선정이 되면 2021년까지 총 사업비 200억원 규모의 국·시비를 확보 가능해 향후 학성동 가구거리 와 지역주민들의 거주환경개선을 위한 핵심 콘텐츠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구청은 기대하고 있다. 🐉



여행작가, 파워블로거 등 20명 대상 팸투어 개최

중구 지역의 아름다움과 숨은 관광지 SNS 게시와 기고 등 통해 알리는 역할 맡아

"문화관광도시 울산 중구 전국에 알린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된 울산 중구가 전국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중구만의 아름다움과 숨은 관광지를 알리기 위해 1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전국 유명 여행 작가와 파워 블로거 20여명을 초청해 관내 팸투어를 실시했다.

팸투어에는 여행블로거 기자단장인 여행작가 강경원씨를 비롯해, 2012년 다음 우수 블로거 여행작가 송순옥씨, 2013년 다음뷰 여행랭킹 1위 최만호씨, 네이버 여행블로거 유수영씨 등 여행과 관련된 유명 여행 작가이자 파워 블로거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15일 아침부터 광역시 내 첫 정부 지정 자연휴양림인 입화산자연휴양림과 입화산 참살이숲 방문을 시작으로 울산의 과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성남동 원도심을 방문했다. 또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태화강대공원과 4km 구간의 대나무숲이 강변에 잘 가꿔져 울산의 12경이자 전국 12대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된 태화강 십리대숲을 둘러보고, 이 시기 태화강변으로 찾아와 장관을 연출하는 떼까마귀 군무도 감상했다.

야간에는 중구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함월루에서 야경을 즐기고, 중구 원도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며 야간 관광문화를 이끌고 있는 울산큰애기야시장을 방문해 먹거리를 즐기고 둘러봤다.

특히, 이날 숙박은 중구의 이색 숙박업소인 한옥스테이 어련당에서 진행해 중구 관광에서만 느껴볼 수 있는 멋스러움을 더 했다. 16일에는 올해 축성 600주년을 맞은 경상좌도병영성을 둘러보고, 한글학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외솔 최현배 선생의 업적을 기린 외솔기념관과 외솔 생기를 방문해 한글도시 중구의 위상을 살폈다.

이어 혁신도시 건설로 드러난 약사제방의 외부를 그대로 살린 약사제방유적전시관을 방문하고, 중구민과 울산 시민들의 문화 · 예술 향유 공간인 중구 문화의전당 시설 관람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1박 2일간 체험한 팸투어 후기를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하는 미션을 통해 울산 중구의 숨은 관광지들을 알린다. 또 여행 작가들은 본인이 활동하는 여행전문잡지 등에 여행 기사를 기고해 울산 중구 관광 홍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중구 17일 '성남댄싱 나이트데이' 운영에 1,000여명 참여

호프거리 내 12개 업소 참여해 제공한 9,900원 술과 안주 인기...공연도 '성황'

원도심 올해 마지막 파티 '흥폭발!'

지난 10월 17일 울산 중구 원도심 젊음의거리 내 호프거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성남댄싱 나이트데이에 1,000여명의 인파가 몰렸다.

'성남댄싱 나이트데이'는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운영했던 달빛옥상콘서트에 이어 진행되는 '도시를 달리다'의 두 번째 프로젝트로 이 지역을 특색 있는 거리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 운영돼 왔다.

중구청은 앞서 8월부터 10월에는 호프거리 내 상점과 연계해 비활성화 된 상가 장소를 대여해 하우스 뮤직파티와 같은 소규모 트랜디한 클럽형 뮤직파티도 진행해 상권활성화 뿐 아니라 젊은이들을 원도심으로 불러들이는역할도 도왔다. 행사가 진행되는 구간은 폭 9m, 길이 150m 가량으로 길 양옆으로 각종 음식점들과 주점이 늘어서 있는 곳으로 현재 젊음의거리 구간 내 유일하게 침체된 호프거리다.

중구청은 이번 성남댄싱 나이트데이를 위해 지난 7월과 같이 이 구간의 아케이드를 활용해 홍대 앞 클럽분위기와 같은 나이트조명을 설치하고, 다양한 음향장비를 동원해 거리 전체를 무대로 사용함으로써 주점과 음식점 손님들이 음악이 흘러나오면 자유롭게 거리로 나와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유명 DJ인 허조교, SEFO, JJ, 노아 등이 총 출동하고, 힙합기수인 올티, 힙합그룹인 케이던스가 참여하면서 주민과 관광객, 젊은이들이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는 등 쌀쌀해진 11월 금요일 밤을 뜨겁게 불태웠다.

또 호프거리 내에 위치한 17곳의 음식점들이 야외테이블 비치와 화장실 무료 개방 등을 진행하고, 술과 안주를 9,900원에 판매하는 특별메뉴를 만들어 참여함으로써 성남댄싱 나이트를 찾은 고객들의 편의를 더 했다.

중구청이 분석한 결과, 그간 사업추진으로 호프거리 일원에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총 27개소 점포 가운데 6개소 공실이 3개소로 감소했고, 그 중 1개소 또한 개업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댄싱 나이트데이 이벤트 등의 참여업소가 최초 7월에는 상인회 14개소였으나 이번 11월에는 17개소로 확대 되었으며, 상인회에서는 이 효과로 인해 매출이 평소보다 30%이상 증가된 것으로 집계했다.

중구청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성남댄싱 나이트데이가 내년은 물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상인회와 긴밀히 협력해 위축된 상권을 살림으로써 젊음의 거리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



"지방분권개헌 촉구" 한 목소리

전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이번 전국총회에 대해 알려달라

매년 총회는 도시마다 돌아가면서 개최되는데, 올해는 협의회 대표회장을 제가 맡게 돼 울산에서 유치하게 됐다. 이번 총회는 개헌 정국에 발맞춰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데 의견을 모아 지방분권에 대해 결의를 다지고, 국회와 정부에 지방분권개헌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운영방향에도 지방분권은 핵심으로, 지난 10월 26일 여수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지방분권 개헌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실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골든타임이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토론회 개최와 지원 방안 등 심도있게 논의 게 됐다.

₫재 지방자치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할 자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아직도 재정과 행정, 입법 등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도시간의 경쟁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중앙에서 모든 것 통제하고 있어 국가성장의 한계가 있다.

특히, 현재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은 2:8로,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방문해 관련 예산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각종 사업에 지원해 경쟁을 통해 예산을 따내야만 하는 구조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에서 하려는 사업을 대신하는 하청업체 같은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자체 재원이 적다보니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도 제대로, 제 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의 특색을 제대로 살려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울산 중구처럼 울산의 종갓집으로서 역사와 문화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은, 울산 중구만의 색깔로 독특한 문화관광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중앙에서 볼 때는 전국에 있는 여러 중심구와 다를 바 없이 보일 것이고, 결국, 실패확률을 줄이기 위해 그들과 비슷한 방법의 비슷한 사업을 지원하는 안전성을 택함으로써 그저그런 문화관광도시로 전략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 지역마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는 시급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총회' 울산서 처음 열려 대한민국 지방분권 국가 천명 등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문' 채택·선언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전국총회가 지난 11월 16일과 17일 양 일간 울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지방분권개헌'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전국총회인 만큼 그 열기가이전과는 사뭇 달랐던 현장. 협의회 대표회장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에게 그곳에서 한 목소리로 요구된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문' 등 이번 전국총회의의미와 지방분권의 필요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전국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을 완성하는 일에 큰 책임감을 갖고 있을 ■ 텐데,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나?

지방분권은 지방정부에 권한을 나눠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이번 총회에서도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개헌'의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촉구 결의문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실로 중요한 문제로, 현재 중앙중심의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된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을 통해 규정 함으로써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벌이는 기관으로써 인정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특히, 이렇게 지방정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4대 지방자치권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되면 현재 8:2의 비중인 국세와 지방세가 7:3, 나아가 6:4 비율로 개선돼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의 영역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이하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 당의 대표가 참석해 '지방분권'에 ■ 대한 강연을 펼치고, 질의응답을 벌였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개헌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주제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한국정치와 지방자치'라는 주제로 각각 기조강연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은 대통령 중심의 권력을 국민에게 나누고, 중앙에 집중된 것을 지방에 나누는 일"이라며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나눠 지역의일을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갖게 되는 만큼, 이를 위해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현재 8:2로 중앙에 집중된 재정을 7:3, 더 나아가 6:4로 개선하는 강력한 재정분권도 실현해 나가겠다"고 여당의입장을 전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지방재정권이 현재 2정도 수준에서 4정도로 늘어나야 지방자치의 실효성이었고, 자치조직권도 확보돼야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 개헌에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인 만큼,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보하고, 자치재정권과 입법권, 조직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의가 앞서야 한다"면서 "시기를 못박지말고 대통령 임기중에 제대로 된 헌법의 틀을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두 분 모두 지방분권의 필요성과이를 위한 개헌에는 동의한 것인 만큼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지진 피해 적게나마 도울게요."

중구 공무원들, 지진피해 성금 500만원 전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총회서 예비비 3.000만원 구호성금 지원

울산 중구청이 최근 강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를 돕기 위해 사랑의 성금을 전달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11월 17일 경북 포항시 흥해읍사무소에 마련된 지진피해 상황실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지진피해 긴급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전달된 성금 500만원은 중구청 직원들의 월급 끝전인 '우수리'로 모아진 300만원 등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박성민 중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집과 일터를 잃은 포항 시민들이 어떤 마음일지 지난해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경험상 누구보다도 잘 이해한다"면서 "당시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느꼈던 만큼 피해복구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직원들과 함께 성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성민 중구청장은 전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협의회에서 마련된 지진 피해 성금 3,000만원을 이강덕 포항시장에게 추가로 전달했다.

협의회가 전달한 이날 성금은 11월 16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시장 · 군수 · 구청장협의회 '전국총회' 중 회장단회의에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의 시민들을 돕자는 제안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자체 예산 가운데 재해재난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중 3,000만원을 긴급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경북 포항시는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북구 북쪽 9km 지역에서 5.4 규모의 강진과 함께 40차례 이상의 여진이 잇따르면서 17일 현재까지 63명이 다치고, 1,347건의 시설피해가 접수되는 등 심각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❷







중구수영장, 본격 운영 '시작'

중구, 1일 한국석유공사 수영장 앞서 개장식 개최 수강생 기존 1,200여명에서 2,000여명으로 65% 가량 확대 수영 강습 4레인에서 6레인으로 늘려 1개반 25명씩 참여... 주민 기대 높아 운영 '만전'

울산 중구 혁신도시 내 한국석유공사에 위치한 '중구수영장'이 준공 3년여만에 드디어 주민들에게 개방돼,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중구청은 11월 1일 풍물놀이와 퓨전국악 '피네' 공연 등 식전공연에 이어 내빈소개, 경과보고, 인사말과 축사, 테이프 커팅과 시설관람 등으로 개장식을 진행했다.

중구수영장은 지난 7월 25일 중구청과 한국석유공사 간의 수영장 운영권 이관 업무협약을 통해서 수영장 건물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제공하고, 운영은 중구청에서 맡아 하기로 한 이후 3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개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는 60여억원을 들여 사옥 내 조성한 수영장과 테니스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중구청은 연간 13여억의 예산을 들여 운영을 진행하게 된다.

중구수영장에는 길이 25m, 8레인의 성인풀과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풀을 갖추고 있으며, 부대시설로 라커룸과 샤워실, 스포츠용품점과 매점 등이 마련돼 있다. 주차장의 경우 기존 조성된 37면과 함께 신세계 백화점 측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공터인 맞은편 신세계 백화점 부지에 200면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

특히, 중구청은 중구수영장에 대한 지역민의 높은 기대와 열망으로 인해 수강생 모집에 당초 운영 계획인원보다 2배 이상이 몰리자 전체 수강 인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중구수영장은 지난달 26일까지 수강생 모집을 시행한 결과, 당초 1,240명 모집에 인터넷 2,136명, 방문 823명 등 전체 2,959명이 몰렸다.

이에 따라 기존 보다 65%의 정원이 늘어난 2,050명으로 확대했다. 중구수영장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평일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사용요금은 월 강습의 경우 성인은 7만원, 청소년은 6만5,000원, 어린이는 6만원이며, 월 자유회원은 성인은 6만원, 청소년은 5만5,000원, 어린이는 5만원이다. 1일 입장 요금은 성인은 5천원, 청소년은 4,500원, 어린이는 4,000원이다. 🚳



'부정적 지방규제 개선나선다.'

중구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첫 회의 개최 인허가 관련 조례 및 규칙 대상 ... 주민 제약 규제 범위 축소

울산 중구청은 11월 13일 2층 중회의실에서 부서별 인허가와 규제관련 담당계장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방규제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가 혁신성장의 기조에 발맞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샌드박스 도입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회의에서는 기존의 조례와 규칙이 원칙금지에 예외를 허용하는 방법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원칙허용에 예외금지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또 각 부서별 인허가와 규제 가운데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신장하는데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유연한 규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

중구,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110% 넘어

5개 구군 중 체납세 징수율정리율 1위 기록 39억 징수목표 넘어선 43억 징수... 체납액 전체 38.7% 해소

울산 중구청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인 결과, 10월말 현재까지 징수목표액 39억원보다 4억원 많은 43억원을 징수해 목표대비 110.3%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중구의 10월말 기준 이월 지방세 체납액은 전체 110억원으로, 이중 올해 징수한 43억원은 38.7%에 해당한다. 이 같은 징수율은 지난해 33.1% 보다 5.6%p 증가한 것으로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이라고 중구청은 설명했다.

특히, 올해 중구청의 체납세 정리액도 징수 43억원과 결손처분 8억원 등 전체 51억원으로, 연간목표액 55억원의 92.7%를 달성했으며, 이 또한 5개 구·군 가운데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중구청은 올해 초부터 체납세 징수대책반을 구성하고, 매월 징수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말까지 전체 체납자의 52%인 만4,000여명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721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처분을 내렸다.

또 1,226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 처분도 실시했다. 지난 1월부터는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연중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하는 한편, 체납자 유형별로 특화된 추적 · 조사 · 징수활동도 벌였다.

이외에도 상·하반기 3개월씩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했고, 최근에는 '전 직원 징수할당제'를 통해 5급 이하 500여명의 직원이 체납세 징수에 나서면서 지난해 보다 8억원이 늘어난 1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냈다. 🖏



중구, 울산 최초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위한 관련 사업 예산 확보 등 추진

울산 중구청이 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발걸음에 나섰다.

중구청은 11월 20일 2층 구청장실에서 박성민 중구청장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 송형범 지사장 등이 참석한 기운데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구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울산광역시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중구청은 장애인 공무원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와 출연,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행정적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사업 수행계획서 수립과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 장비 지원 사업 의 추진과 기술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로 인해 중구청 소속 지방공무원 가운데 장애인 공무원이 편의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애 유형과 장애 등급, 업무 난이도별로 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와 장비를 지원받게 된다. 🕅



중구자원봉사센터, 사단법인 준비 '착착'

센터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개최 ... 오병한 이사장 초대이사장 선임

울산 중구청은 11월 22일 2층 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 설립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에서 참가자들은 중구자원봉사센터의 사단법인화 시 필요한 정관(안)과 임원 선출, 사무소 설치, 2018년 사업계획 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이들은 법인의 명칭을 '사단법인 울산중구자원봉사센터'로 하고, 사무소를 중구에 두며, 자원봉사 관리자와 지도자의 교육 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규정했다.

또 회원과 임원, 이사회 구성을 비롯해 총회, 사무국 등의 운영과 활동 범위, 재산과 회계운용 방법 등에 대한 정관(안)을 원안가결했다. 임원선출을 통해 초대이사장으로 울산중앙새마을금고 오병한 이사장을, 부이사장에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 시지부 박민호 회장을 각각 선임했다.

2018년 사업 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재기방역, 자원봉사자 교육 지원과 워크숍 개최,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참가 등 10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민간위탁금 3억4,000여만원을 확보해 내년도 예산으로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울산 중구청은 12월에 중구자원봉사센터의 허가신청과 설립등기를 마치고 2018년 1월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









중구지역 13개동 천사계좌 단체가입 마쳐



병영1동















우정동



중앙동





- 가입상담→신청서 작성→구좌선택(3천사, 5천사 등)
- 매월 지정한 통장에서 지정일자에 선택 금액만큼 자동출금
- 기부금액의 16.5% 세재공제 혜택 받음(사업자는 규모별로 상이)
- 연말 국세청 연말정산 기부내역 자동 등록됨



- 중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2-290-4492
- 각 동주민센터 : 다운동(052-290-4680), 반구1동(052-290-4520), 반구2동(052-290-4540), 병영1동(052-290-4700), 병영2동(052-290-4720), 복산1동(052-290-4560), 복산2동(052-290-4580), 성 안 동(052-290-4600), 약사동(052-290-4740), 우정동(052-290-4640), 중앙동(052-290-4620), 태화동(052-290-4660), 학성동(052-290-4500)
- 울산사랑의열매 : 052-227-0770





동 복지허브화 실시 9개 지역에 각각 1대씩... 방문상담, 물품 지원 등에 활용



중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 전달

울산 중구청은 11월 23일 청사 앞 주차장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 9대를 전체 13개 동 가운데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실시 중인 지역 내 9개동에 각각 1대씩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박성민 중구청장과 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추진 중인 중앙동, 복산1 · 2동, 태화동, 다운동, 성안동, 병영1 · 2동, 약사동의 동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차량 전달은 동 복지허브화 실시 지역인 9개동의 경우 가정방문이 늘고, 물품의 지원도 확대됨으로써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차량을 보급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기반을 한층 더 견고히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보급된 복지차량은 준중형 5인승 전기차량으로 네비게이션과 블랙박스, 스마트워치 등이 옵션으로 장착돼 있으며, 1대당 3,000만원 상당으로 국비와 시비, 구비 등 전체 3억1,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구입했다.

보급된 차량을 받은 9개동에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생활실태 확인, 통합사례관리, 물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된다.

특히, 찾아기는 상담 강화로 위험상황에 노출이 잦은 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응급 호출, 녹취, 위치정보 확인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도 함께 지원돼 현장에서 근무 하는 공무원들의 안전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구청은 2018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4곳의 동 주민센터에 복지차량을 지원함으로써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중구청 장애인 배드민턴팀 파이팅!!



박상태 기자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7 울산 세계장애인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동천체육관 에서 폐막식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우리 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금3, 은3, 동6개의 메달을 획득 했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 중 울산 중구청 소속 선수 들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다. 이삼섭, 김경준, 김경훈 선수가 단식·복식경기에 나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차지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든든한 기둥임을 입증했다. 또한 김묘정 울산 중구청 감독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 자격으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 이번 세계 선수권 대회를 좋은 성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그동안 울산 중구청 장애인 배드민턴팀은 국내대회는 물론 각종 세계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2017 울산 세계장애인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도 값진 승리로 우리나라가 장애인 배드민턴 강국의 위업을 이루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앞으로도 울산 중구 장애인 배드민턴팀의 활약을 기대하며, 울산 시민의 많은 성원과 응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글 놀이에 빠지다! 한글아 놀자! 외솔기념관 나들이

양승현 기자



2017 한글문화예술제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원도심 문화의거리 일원과 외솔기념관에서 열렸다. 그중 '한글 놀이에 빠지다! 한글아 놀자!란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외솔기념관을 방문했다. 입구에서부터 체험부스들이 아이들과 시민들을 맞이 하고 있었다. 한글바닥놀이터, 한글 비눗방울 만들기, 모여라 보드게임왕 등 한글과 놀이를 결합해 온 가족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한 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는 한글 타요버스의 인기도 대단했다. 외솔기념관에서 울산 동헌까지 이동하면서 훈민정음 해례본과 한글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한글창제 대한 역사를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해례본은 세종 때 창제된 훈민정음을 설명한 한문해설서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음과 모음의 제작 원리와 적용 방법 등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1943년 훈민정음을 만들어 3년 동안 다듬고 실제로 써본 후 1946년 음력 9월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반포한 날을 양력으로 바꾸었을 때 10월 초순쯤이 되어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했다는 유래도 들을 수 있어 한글의 역사를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다.

2017 한글문화예술제를 통해 한글이 주는 즐거움을 체험하고 한글사랑을 키울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한글보급에 평생 한길을 걸은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한글의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외솔 최현배 선생의 헌신과 업적, 우리말에 대한 소중함과 우수성을 지키고 널리 알리는 것이 한글 문화도시에 시는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한다. 한글문화축제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외솔기념관, 외솔선생 생가, 외솔도서관 등 우리 지역의 한글공간을 자주 찾고 우리말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제44회 고창모양성제를 다녀와서..

김정숙 기자



지난 10월 27일 중구뉴스 기자단은 1박2일 동안 전북 고창과 광주 일원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44회 고창모양성제와 고인돌 유적지 관람, 광주 펭귄마을 탐방 등으로 구성된 이번 일정에서 중구뉴스 기자단은 울산 중구 발전을 위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첫 방문지인 고창모양성제가 인상 깊었다. 방문 당시 제44회 고창 모양성 제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고창 모양성제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축제에 지정된 축제다. 때마침 만난 박우정 고창군수와 진남표 고창모양성제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축제를 통한 전통문화

와 스토리텔링 연계, 그리고 고창의 역시를 엿볼 수 있었다. 모양성은 외침을 막기 위해 조선 단종 때 전라도와 제주도 19개현의 백성들이 힘을 합쳐 축성한 성곽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형이 잘 보존된 성곽 중 한곳이다. 고창군청에서부터 보이는 견고한 성벽 위로 한복을 입은 아낙네들이 머리에 손바닥 만한 돌을 머리에 이고 일렬로 성을 오르고 있었다. 모양성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답성놀이가 시작된 것이었다. 답성놀이는 모양성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성을 밟아 튼튼하게 다지는 행위를 재연한 것으로, 세 바퀴를 돌면 무병장수와 극락 승천한다는 전설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뒤따라 성을 올랐다. 답성놀이에 이어 1천여명의 아낙네들이 강강술래를 화려하게 펼쳤다. 축제의 역사성과 규모면에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병영체험, 전통놀이 체험, 옛스러움이 가득한 체험부스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하고 지역민들의 동참으로 축제의 열기가 뜨거웠다. 우리지역 울산 중구에도 병영성, 울산왜성과 같은 성곽유적이 많아 성곽도시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아쉽게도 수세기를 거쳐오면서 외형을 크게 상실했지만 현재 스토리텔링, 복원이 심도 있게 추진 중이라 하니 울산의 성(城) 축제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문화 관광의 한 축으로서 성곽자원이 그 웅장하고 위대한 모습을 하루 속히 드러내길 기원한다.

울산 중구 원도심과 닮은 광주 양림동

도맹자 기자



10월 말, 중구뉴스 기자단은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해 2017 올해의 관광도시 광주 남구 양림동을 찾았다. 먼저 핫플레스로 이름 높은 양림동 펭귄마을을 찾았다. 양림동 펭귄마을은 주민들이 작은 옛 골목길을 재활용 폐품들과 골동품을 모아 예술작품으로 만든 마을로 최근 관광객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펭귄마을 촌장의 안내로 펭귄마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들을 수 있었다. 펭귄마을이라는 이름은 나이가 들어 걷는 것이 불편해진 어르신들의 모습이 펭귄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구불구불여러 갈래로 이어진 골목길에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펭귄조형물과 벽시계.

과거 음반, 액자 등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학창시절 즐겨 먹던 쫀드기 같은 예전 주전부리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마치 골목길을 들어서면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기분이 들 정도로 특별한 장소였다. 대도시 안에 자리 잡은 타임머신 같은 장소라 소개하고 싶다.

다음으로 양림동장의 안내로 멋드러진 고택이 잘 보존되어있고, 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을 돌아보았다. 과거 광주의 상류계층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이장우 가옥 등 전통가옥이 시간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일대가 미술관, 공방으로 예술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고, 단정하게 정비된 골목길은 곳곳이 포토존이 되었다. 양림동장이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추천한 양림교회는 벽돌 하나하나에서 100년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성 있는 음식점, 소박한 카페 등 옛 멋을 손상시키지 않고 지키려는 보이지 않는 노력도 보였다. 광주 양림동은 울산 중구의 모습과 닮아있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를 준비하고 있고, 예술인들이 모여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옛 멋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은 중구 원도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광주 양림동의 발견은 울산 중구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분명 많은 영감이 될 것이다. 원도심이 원도심다워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의회 News

울산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서경환)는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에 걸쳐 제20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올해 추진된 구정업무 전반을 점검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당초 예산안 심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중구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중구가 추진한 청년쇼핑 몰 사업의 문제점을 두고 고강도 감사를 벌였으며 이 밖에도 장애인주차 장의 불법주차문제, 내오산로 인도데크 공사의 안전성 문제, 문화관광 브 랜드사업 활성화 등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중구청이

편성, 제출한 「2018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2017년보다 17.98% 증액된 3,459억원 규모의 예산안 심의도 진행했다. 중구의 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열린 제20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확정했다.

이어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벌인 뒤 12월 21일 제3차 본회 의에서의 최종 의결을 끝으로 2017년 마지막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중구의회 서경환 의장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정례회 일정을 통해 중구의회 11명의 소속 의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이 알차게 진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며 "새롭게 맞이한 2018년 무술년에도 주민 곁에서 소통하며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 중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활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서경환)가 활발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복희)는 제202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10월 12일 우정동주민센터 건립예정지와 다운역사공원 조성 예정지, 입화산 자연휴양림 대상지 등을 찾아 점검활동을 벌이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의회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 지난 9월에는 주민들의 기대 속에 개장한 중구수영장을 찾아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 안전점검도 펼쳤다.

이복희 위원장은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직접 보고 확인하는 것 역시 의원들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현장활동에서 얻은 정보와 경험을 토대로 향후 의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김순점) 역시 지난 10월 13일 중구노인복지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 등 관내 대표적 복지시설을 찾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과 개선할 점은 없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정취하는 한편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시설운영에 노력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지난 9월에는 체류형농촌체험마을 조성 현장도 찾아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김순점 부위원장은 "어르신과 지역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대표 시설인 만큼 세부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관내 복지시설과 주민여가시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중구의회'





울산 중구의회(의장 서경환)가 나눔과 봉사의 의정을 실천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9월 26일 구역전시장 일원에서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캠페인을 펼쳤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캠페인을 통해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점을 청취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또 직접 준비한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한편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중구의회는 또 전통시장 캠페인 이후 반구경로식당을 시작으로 중구노인복지관과 함월노인복지관 등 관내 주요 복지시설 11곳을 차례로 방문해 어르신과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하고 시설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마음을 모아 준비한 위문품도 전달했다.

특히 의원들은 노인 및 소회계층의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서경환 의장은 "지역경제의 바로미터인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고객들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탈비꿈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의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구의회는 늘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이들을 위한 활발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수성구 의회, 벤치마킹 위해 울산 중구의회 방문



대구 수성구의회가 중구의회를 찾아 시설을 견학하고 의원들 간 간담회를 가졌다.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의원과 관계공무원들은 지난 9월 25일 중구의회를 찾아 서경환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들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의회 주요시설을 둘러봤다.

또한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서상국 위원장과 중구의회 서경환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서로 준비한 기념품을 교환하며 두 의회 간 우애와 교류를 약속하기도 했다.

서경환 의장은 "수성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의원들의 방문을 환영

한다"며 "두 의회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울산 중구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알찬 견학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막했다

수성구의회 서상국 위원장은 "갑작스런 방문에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서경환 의장님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울산 중구가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되는 등 최근 관광문화도시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어 이번 견학을 통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며 많은 정보를 얻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수성구의회 방문단은 중구의회 시설 견학에 이어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추진 중인 태화강대공원과 십리대숲을 찾아 견학활동을 이어갔다.























